

# 육아정책 소식

##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4일(목)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교육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놀이와 휴식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 원칙’ 하에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영어의 과정 운영을 허용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향후 시·도교육청에서 놀이 중심 영어의 원칙 하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며,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영어의 학부모 수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1일 1개 1시간 이내) 운영토록 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게는 별도의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도록 하며, 또한 놀이 중심영어의 운영 기준을 벗어난 불·편법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아를 중심으로 놀이와 쉽 보장되는 교육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대폭 확대하고,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바람직한 방향의 유치원 방과후 과정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

-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노래, 게임, 음악 및 율동 등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놀이 활동

한편,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은 선행교육을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유·초등 영어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들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 지역아동센터·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의 학습 돌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은 학습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월 15일(월) 오후 3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에 ‘생명숲 꿈이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1월부터 일년간 지역아동센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초등 1~3학년 중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의 자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밀크티(milk+T)\* 이용권·기기(태블릿), 책상·의자 등 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 아동은 밀크티를 통해 해당 학년 전 교과목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수강하며 복습이나 선행학습을 하고 영어·한자 공부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등 눈높이에 맞춘 자기주도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된다. 복지부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성과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향후 4,000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커지고 민·관간 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My Interesting Learning Knowhow + Tutor 약어로 교과서를 토대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사고의 확장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재미를 알게 해준다는 뜻

##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5일(목) 오후 3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되는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은 집중점검 즉시 실시(10.22~) 등 이미 추진 중인 사항에 더하여 제도개선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주요 내용 〉

즉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중점검 실시(시군구 교차점검)</li> <li>전체 어린이집 대상 지도점검</li> </ul>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보육료 지출에 대한 관리 및 처벌강화</li> <li>위반사실 공표대상 확대(300만원 → 100만원 이상)</li> <li>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시 어린이집도 설치 금지</li> </ul>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점검 지원조직 구축</li> <li>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기능 강화</li> <li>학부모 운영위원회 활성화</li> <li>회계 컨설팅 강화</li> </ul>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공립 어린이집 확충</li> <li>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li> <li>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접근성 확대</li> </ul>

##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월 25일(목),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13년 만3~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 이후 유아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유치원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유아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미흡하였다. 시·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미숙·착오부터 유치원 회계 몰이해 수준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특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예산 부적절 운용 이외에도 불법건축물, 정원기준 미준수 등 불·편법이 관행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당·정은 기존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되었던 한계를 인정하면서,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급변 대책은 학부모, 시·도교육청, 국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시스템 뿐 아니라 공·사립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즉각 추진과제로 ① 유아의 학습권 보장 ② 국공립 유치원 확대 ③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제도 개선과제로 ④ 학부모 참여 강화 ⑤ 투명한 회계 운영 ⑥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에 합의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시기를 앞당겨 초기에 국정과제를 달성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당초 500학급 확보를 1,000학급까지 확대하고,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유치원 매입, 병설학급 증설 등 다양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유부총리는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집단휴업 논란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에게 맞서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아래 엄단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치원 휴업·폐원 관련 절차 보완 지침 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일(목)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침(「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지침)을 개정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다. 매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으로, 이번에 보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유치원 휴업·폐원 관련 보완 지침 개정 주요내용 〉

구분	현행	개정
임시 휴업	임시휴업에 대한 별도의 학부모 동의 절차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 휴업일 이외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유치원장이 휴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과 학부모 동의(2/3이상)를 받아 결정</li> <li>※ 돌봄 수요 있는 경우, 돌봄 대책 포함</li> </ul>
모집 중지	원아모집 중지에 대한 처리 절차 및 일방적인 모집 중지에 대한 별칭 적용 안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가받은 모집 정원에 대한 모집 중지는 교육과정 운영 의무 위반 및 변경인가(정원 변경) 위반으로, 일방적인 모집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임</li> </ul>
폐원	폐원 신청시 유아지원계획서 제출 관련 학부모 동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원 신청시 학부모의 동의*하에 유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li> <li>*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폐원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판단</li> </ul>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회의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1월 27일(화) 박백범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휴·폐원 등으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시도교육청 추진단과 협력하여 대책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이 함께 하는 4번째 합동 점검회의로 최근 일부 유치원의 모집보류 및 폐원 통보로 침해받는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 및 모집 보류 대응방안,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방안,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 개선 방안, △시·도별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폐원을 검토 중인 85개원에 대해 폐원기준 철저히 적용
  - 특히, 폐원 후 학원 전환을 하려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지원금, 감사결과 시정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 후 폐원절차 적용
- 모집보류 중인 121개원에 대해 신속히 행정지도 추진
- 학부모 입학 편의와 공정한 입학기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공·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 의무화되도록 조례 제정 추진
-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은 추가적으로 협의, 추후 12월중 국공립확충계획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 발표

## 모든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5일(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기반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HD행복연구소) 및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학생 및 교원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왔으나,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민간 전문가와 다른 부처 공공기관의 기반을 활용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HD행복연구소 감정코칭 강사 140여명 및 여성가족부의 부모교육 전문강사 130여명에게 학부모용 어울림 프로그램\* 연수를 실시하여 학부모 교육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예방 부모교육 전문강사 명단과 어울림 프로그램을 단위학교 등에 안내하고 누리집\*\*에 탑재하여 학교 및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학부모 교육을 할 때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온라인 교육자료\*\*\*\*는

누리집에 탑재해서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학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학부모 지원센터에 ‘자녀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학부모용 어울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관련 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 \* 학교폭력 예방 역량(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학교폭력 인식·대처, 갈등해결)을 4개 학교급별(초저·초고·중·고)로 개발한 학부모용 프로그램(24종)
- \*\* 교육부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누리집([www.edunet.net/nedu/doran](http://www.edunet.net/nedu/doran)) 및 여성가족부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누리집([moge.go.kr](http://moge.go.kr))
-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총 261개소) 등
- \*\*\*\* 공감을 통한 관계개선, 신뢰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기법, 감정조절을 통한 갈등해결, 내 자녀의 자기존중감,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등 총 5차시(‘18.12. 개발)